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워십
1부/내 주는 강한 성이요(찬384/새585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정현근 장로 2부/이양수 집사 3부/윤대호 집사 4부/김승진 집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콰이어
1부/내 주는 강한 성이요(Martin Luther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 All together 다같이
2부/이재하(Owen) 3부/강인우(Connor)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John) 6:60-71 All 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10:22-42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궁예(11) 너희도 가려느냐?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36)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위의 것 vs. 아래 것

Things Above vs. Things Below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지난 주말 교회 카페에서 저의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생애 한 순간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취미로 시작했던 캘리그라프와 간단한 수채화로 빈 공간을 채우던 작은 출발이 재미를 붙이고, 또한 성도들 개업 예배와 입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액자에 넣어 가던 것이 쌓여서 아직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작품 전시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는 미미하지만, 담임목사가 그러서 심방 했다는 의미로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 주시던 것이 열매가 되어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전시회의 주제를 생각하다가,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저의 골로새서 강해집 <오직 예수로 옷을 입어라!>가 출간되어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오늘의 현실을 사는 가장 능력 있는 방법입니다. 하물만 바라보면 비현실적이라 비난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다 가질 수 있지만, 땅의 것을 찾으면 둘 다 잃어버립니다.

문득 지난주에 다녀온 알래스카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곳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알래스카 사람들이 미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켜 "아래 것들"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함께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더 위쪽, 북극에 가까운 높은 곳에 산다는 자부심이 담긴 유쾌한 별칭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진짜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땅의 가치에 얽매어 살아가는 '아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저 높은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사모하는 '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취미의 결과물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붓끝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온 성도와 함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위'가 어디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목회의 여정을 지나 은퇴 후의 새로운 사역도 [위에 것 Things Above 사역: TAM]이라 명명하며 또 다른 꿈을 꾸니다. 현역의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의 시선은 결코 아래로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위에 것'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늘 하나님의 것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위에 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의 삶까지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Last weekend, I had an exhibition of my artwork at the church café. Never in my life did I imagine such a thing would happen. What started as a small hobby—filling empty spaces with calligraphy and simple watercolors—grew as I enjoyed it more, and as I framed and presented pieces to church members during their business opening or housewarming worship services. Over time, these accumulated, leading to an art exhibition that still feels surreal to me. To be sure, its value as fine art is minimal, but I believe it has reached this point today as a fruitful result of the congregants joyfully accepting these pieces during pastoral visits, knowing they were crafted by their senior pastor.

While thinking about the theme for the exhibition, the passage in Colossians 3 came to mind: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and "Seek things above". Coincidentally today, my commentary on Colossians, [Clothe Yourself Only in Jesus!], was published and presented to the church members for the first time. As I mentioned during my sermon then, seeking the things above is the most powerful way to live in today's reality. Looking only at heaven can easily draw criticism for being impractical. However, if you seek the things above, you can gain both the things above and the things of the earth; but if you seek the things of the earth, you will lose both.

Suddenly, a memory from my trip to Alaska last week crossed my mind. While chatting with the locals there, I burst out laughing when I heard that Alaskans refer to people from the contiguous United States as "those from below". It was a humorous nickname filled with pride in living in a higher place geographically, closer to the Arctic Circle. I think that we believers are the ones who truly live looking towards the spiritual 'high place'. This is because we are not 'those from below' who live bound by worldly standards or earthly values, but 'people of above' who follow the laws of the Kingdom of God and long for the holy values of the high heavens.

This exhibition was not merely a place to show off the results of a hobby. It was a meaningful and rewarding time to share God's word captured in my humble brushstrokes and to reaffirm with all the congregants where 'above—the place we should look toward' really is. Now, beyond my active ministry, I dream another dream, naming my post-retirement ministry [Things Above Ministry: TAM]. Even after stepping down from my current active ministry, my gaze toward the Kingdom of God will never turn downward. Longing even more for divine things, I resolve to live a life that constantly seeks and asks for 'things above' until the final moment of my life. I believe that if we always seek the things above with a heart longing for God's divine things, God will fill even our earthly lives in the most beautiful and abundant way.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60-71)

1.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열광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까요?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였을까요?
2.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웠던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4.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내 삶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5.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실패와 회복을 보면서 내가 새롭게 깨닫는 복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6. 이번 주에 주님께서 "너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적용하기



■적용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 간증
온두라스

복음으로 하나 된 은혜의 여정



이번 온두라스 단기선교는 준비 과정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만큼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0대 시니어부터 20대까지 총 23명의 선교팀원이 의료 사역과 VBS, 교도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El Progreso 지역 교도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도소에 들어섰을 때 수감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많이 놀랐으나, 그 환경 속에서 박성권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찬양을 시작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그들의 태도와 눈빛을 통

해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복음을 듣는 수감자들뿐 아니라 선교팀원 모두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Tela 지역 구치소에서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말씀 선포가 시작된 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수감자들과의 거리감도 점차 사라졌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결신하는 수감자들과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보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시간들은 단순히 교도소와 구치소를 방문하는 사역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닷가 흑인 마을에서 오전에는 어린이 VBS를, 오후에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점차 마음을 열고 기뻐하는 모습에 팀원

들은 큰 감동을 받았으며, 다시 찾아와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는 의료와 교육을 넘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복음 전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처음 경험한 교도소 사역은 말씀 선포의 중요성과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복음 전도의 능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내년에도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기대와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온두라스의 이선교사님께서는 우리 선교팀을 보시고 완벽하고 조직적인 팀이라며 놀라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의료팀, 한방팀, 안경팀, 미용팀, 복음 전도팀, 사진팀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팀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과 사랑으로 동행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열매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승호 집사

예배 간증
엘리사 새벽기도회

눈물이 찬송되게 하신 확신의 시간

저희 '기쁨/신혼부부셀'은 다양한 연령과 신앙의 여정, 각양각색의 삶의 경험을 지닌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배경은 저마다 다르지만, 함께 나누는 삶의 고백과 기도 제목은 깊고 풍성합니다.

이번 엘리사 특별새벽예배는 무더지고 지쳐 있던 저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놓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셀원들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며 박경철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9장과 30장의 말씀으로 제 메마른 심령 깊숙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고 죄 가운데 방황할 때조차 결코 제 손을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끈질기고 애뜻한 사랑을 마주했습니다. 자식이 결길로 갈 때 '제발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이 그 새벽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버겁고 뜨거워 도망치고 싶기도 했지만, 결국 저를 살리고 품어 주

신 것은 언제나 그 뜨겁고 신실한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저와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 제 삶의 무거운 짐과 고단함도 비로소 '은혜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주저앉았을 그 자리에 함께 엎드려 준 셀원들이 있어 더욱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나누고 눈물로 손을 맞잡으며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채워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확인한 이 사랑을 붙들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부어 주신 은혜는 오이코스 예배 준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을 한목소리로 준비하고 응원 깃발을 제작하는 동안, 삶의 무거움은 사라지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향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웃음과 따뜻한 섬김 속에서 우리 목장이 영적으로 더욱 단단히 하나 됨을 깊이 느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 가며,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빚어 가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세진 집사



Come&See 50 특집 15

베델의 여정

1993년 1월 첫 주 베델 예배는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랫동안 메마르고 어둡던 내 영혼 속에 환한 빛이 비취었습니다. 이런 예배가 있다니! 너무 좋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 같은 돌탕(돌아온 탕자)들로 교회가 복적였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 10월에야 교회 등록을 하게 됐는데, 1월에 함께 나왔던 분보다 교적 번호가 350번이나 밀려진 걸 알았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넘치는 교인들로 인해 3부 예배로 증설되면서 저는 2부 예배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제 안에 있던 어둠과 상처들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1998년 손인식 목사님이 이끄시는 문화 선교가 시작되어 선교 중창단, 무용단, 의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칼미키아, 몽골, 칠레, 체코와 폴란드, 중국 연변을 다섯 차례 방문하며, 은혜 넘치는 복음 전파와 문화

교류를 통해 전무후무한 문화 선교의 복된 시간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중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고, 2005년부터 중미 단기 선교에 동참하여 어린이들에게 복음 팔찌로 찬양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2014년 터키 부육아다 섬에서 어른들에게도 복음 팔찌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은혜로 Sower's Joy 복음 팔찌 사역을 시작하여 온 세상 남녀노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베델에서 거듭났고, 주님께 어릴 때 '어느 교회 가든지 반주를 하겠노라' 한 약속을 베델에서 15년 섬기고 은퇴할 때까지 40여 년간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주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교부터는 기다림과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였고, 복음 팔찌 선교 사역으로 이어져 섬기게 하셨습니다.

입니다. 이제는 미국 치매 양로원에서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며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세월동안 다함께 하셨네'

김한요 목사님이 작사하신 'Come and See' 찬양을 가슴 벅차게 높이 부르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김은경 권사

사역 간증
소망 바자회

몇 달 전 소망 오케스트라 헌금송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하지? 아니, 어떻게 연주를 하지?'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봤지만, 그러나 연주는 너무도 감동적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려고 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안 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라는 것은 신체 기능 중 일부만이 불능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면 다 장애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인 장애보다 영

적인 장애는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망 오케스트라 펀드를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를 도우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니,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장애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옆에서 함께하시는 선생님들과 유스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서로가 지체가 되어 부족한 부분을 돕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우리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장애우들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기예보로 많이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날씨도 주관하시

는 주님이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봉사자들이 빗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기쁘게 섬겨 주시고 많은 물건을 구입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오케스트라 펀드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베델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 약한 지체를 일으키고 세우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기도하며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김미화 권사



성례 간증
유아세례

보이지 않는 손을 믿으며



하엘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은혜를 느낍니다. 하엘이의 이름에는 엘로힘이신 하나님께서 하엘이의 삶을 계획하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평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저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곳에서 저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엘이도 자라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제가 곁에서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엘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에, 저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엘이의 인생을 맡겨 드립니다. 이

번 유아세례를 통해 하엘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평생 하엘이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경민/김해람



저희 가정에 귀한 딸 서아가 올해 3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난 6개월 동안 무탈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고 유아세례를 받

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척 생소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힘들고 지치

는 날들도 많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아를 통해 저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부모가 되면서 힘들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아이가 저희에게 주는 사랑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크기에 오늘도 서아를 더 사랑하며 부모의 역할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부모로서 아이에게 믿음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통해 보여주며 좋은 본보기가 되고자 합니다. 서아가 자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곁에서 기도하며 이끄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임우영/임보람 집사

예살 간증
캠퍼스 전도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이번 캠퍼스 전도는 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도 주저스러웠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데에도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힘이 된 것은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은혜를 받았고, 저 역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서도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서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금씩 더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문성

제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전

하고 교회로 초청하면서, 제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을 제 입술로 직접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어떤 분이신지,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확신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돌아볼수록 전도를 통해 만난 분들도 그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번 만남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로의 초청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져,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안태희

캠퍼스 전도를 나가기 전까지 저는 전도를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순전히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도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과정은 오히려 제 신앙을 먼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캠퍼스 전도와 신입생 초청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자리에 나아가 '내 안에는 복음의 감격이 남아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기도할 때, 전도는 단지 전도를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전도를 통해 잊고 있었던 제 안의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깨닫게 되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준우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동사목사: 황모세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수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수채플: 공병주 목사
예수채플: 최요셉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인턴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정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밀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수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경아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Fall Family Fest

오는 10월 31일(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배우는 Fall Family Festival이 열립니다! 올해의 주제는 "Sacrifice(희생)" 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진행 일정:

Check-In: 오후 4시 30분

Worship: 오후 5시-6시

Carnival: 오후 6시-8시



예배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카니발이 진행됩니다! 점퍼,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포토부스, 마술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핫도그와 주스, 팝콘 및 솜사탕 교환권이 제공됩니다. 또한 보바를 구매하실 수 있으며, 어른들을 위한 푸드트럭 2대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복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Gospel Station도 마련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 주신 희생과 사랑을 배우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복음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현호승(Daniel) 목사 (949)677-4911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월)	11/1:	①부-정광목	②부-장천경	③부-이준혁	④부-김유리
	11/8:	①부-조관희	②부-이근제	③부-정병철	④부-이유진
	11/15:	①부-조부연	②부-정낙성	③부-조광종	④부-이가현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0,11월)	10/31: 이원배	11/7: 임병규	11/14: 손세진	11/21: 전민혁
강단꽃(10,11월)	10/25: 이인철	11/1: 이미옥	11/8: 이선옥, 이선애	11/15: 장석우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홍일(성형외과), 간호사-박수연

다음주 | 의사-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박규희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썸머 타임(Daylight Savings Time) 해제** 다음 주일(11월 1일)부터 썸머 타임이 해제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새벽 2시에, 새벽 1시로 변경 됩니다)

◆ **황모세 목사와 함께 떠나는 수요말씀여행 'Kingdom Perspective: Covenant'** 수요말씀여행이 다섯 번째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는 '삶을 바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함께 공부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배워가는 은혜의 시간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의노트는 현장에서 배포되며, 유튜브 강의 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10월 28일(수) 저녁 7시, 본당

자녀돌봄/문의: 유아·유치부 및 K-5학년 대상,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103차 베델동산 모집** 베델동산을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시: 12월 18일(금)~20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석승진 장로 (949)232-0872



<참가자 신청>



<봉사자 신청>

◆ **Back to Bethel: A Homecoming**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베델의 온가족을 '홈커밍 예배'로 초대합니다. 한때 베델의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우리의 자녀들과 오랜 친구들을 초대해 주세요. 베델의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로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① QR코드로(또는 부스에 오셔서) 초대하고자 하는 자녀/친구의 정보를 등록하시면 백투베델 팀에서 행사 초대장을 발송해 드립니다. ② 다양한 음식과 액티비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일시/장소: 11월 21일(토) 오후 4시 30분, 베델교회(코트야드에서 식사, 본당에서 예배)

문의: 김인규 장로 (949)331-8419



◆ **기도사역 연합기도회 / 기도학교 세미나** 골방기도, 레위기기도, 두드림, 기도학교로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연합기도회 후, 기도학교 세미나 두번째 시간으로 진행되오니 기도학교 등록 중인 훈련생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31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오전 7시 30분, 살롬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베델 그레이스 콰이어 모집** 시니어합창단의 단원(60세 이상)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본당 2층 찬양채플에서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콰이어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이국선 장로 (848)677-3840, 오성애 권사 (909)319-2158

◆ **예살 연합 수양회** "Christ > Everything"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수양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삶의 참된 주인으로 시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많은 기도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문의: 11월 6일(금)~8일(주일), Pali Retreat, 강솔로문 목사 (714)615-1220

◆ **Family Fall Fest 'Sacrifice' 등록** 영아부부터 5학년까지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과 소망부 학생들까지 등록하실수 있사오니 온 가족이 참여하셔서 복음의 축제의 시간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면 참고)

일시: 10월 31일(토) 오후 4시 30분 체크인 시작

등록/문의: 교회 홈페이지(www.bkc.org), 각 부서 전도사

◆ **김한요 목사 신간 도서 판매 및 저자 사인회** 목회의 여정 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골로새서 강해서, <오직 예수로 옷을 입어라!>가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코트야드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저자 사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큐티인 11월호 판매** QTin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10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축하해 주세요**

- 오늘 2부 예배에 이태희/이혜원 성도의 아들 이재하(Owen Lee)의
- 오늘 3부 예배에 강명성/임지현 집사의 아들 강인우(Conner Kang)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윤기성 집사, 윤선숙 권사의 차남 윤보석 군과 이혜원 장로, 박영지 권사의 자녀 이효림 양의 결혼식이 10월 24일(토)에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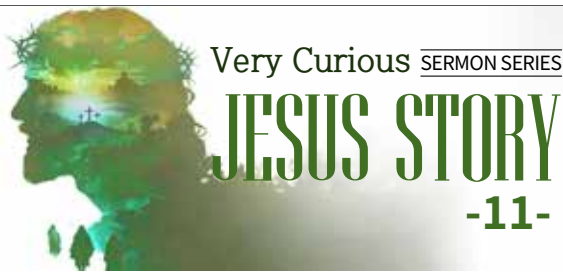
◆ **위로해 주세요**

- 故 마성자 권사님(마케빈 집사의 모친, 마현진 집사의 시모)께서 10월 21일(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주필균 목사님(주열매 선교사의 부친, 장광장 선교사의 장인)께서 10월 22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아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본당 ■ 예살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do you? (John 6:60–71)

1. Why do you think the people who were so excited by Jesus' miracles ended up leaving after hearing His words? What were they expecting from Him?
2. Has there ever been a teaching of Jesus that was difficult for you to understand or heavy to accept? How did you respond back then?
3.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in Jesus because of what He has done for you versus believing in Him because you love Him for who He is?
4. What does Peter's confession, "Lord, to whom shall we go?" mean to you in your life right now?
5. Although Peter denied Jesus, he was later restored. As you reflect on his failure and restoration, what does it teach you about the grace of the Gospel?
6. If the Lord were to ask you this week, "Do you also want to leave?" how would you like to answer Him?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